

# **DISCIPLE DEVELOPMENT COACHING**



*Christian 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2016



ISBN 978-1-938514-99-9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by Nurturing Faith Inc., Macon GA,

[www.nurturingfaith.net](http://www.nurturingfaith.net)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is available.

All right reserved.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제자양육

DDC

# 코칭

DISCIPLE  
DEVELOPMENT  
COACHING

21세기 선교적 교회를 위한  
제자들의 공동체 세우기

마크 티즈워스  
어셀 해리슨  
지음

박사무엘 옮김



## 역자의 글

미국 땅에서 목회상담학에 심취한지 어언 15년 이상 지나갔다.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고, 가족관계의 심연을 파고들며, 인간관계의 역동과 그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영향들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영적, 신앙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맛보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학문적 연구와 상담적 실제, 그리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목회상담을 재조명하면서 교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왔다. 멘토링, 영적 지도, 그리고 코칭 등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제자양육코칭은 현존하는 다양한 인간성장을 돕는 기술들 중 교회 문맥에 맞는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이 책이 뛰어난 점은 현재 인간성장을 돕는 접근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코칭기술을 통해 21세기에 도전받고 있는 현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안은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인기영합적 접근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책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21세기형 기독교인 양성의 방법은 코칭을 통한 제자 양육이다. 기존의 제자양육과 다른 점은 양육하는 리더가 매뉴얼에 따라 양육받는 제자를 일방적, 하향적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을 탈피한다는 것이다. 제자양육코칭은 기존의 정형화된 가르칠 내용에 대한 전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는 코치와 제자와의 의도적 관계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코치는



단지 제자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내밀한 역사를 발견해 가도록 옆에서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

현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목마름을 겪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배, (방송)설교, 성경공부, QT, 제자훈련 등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 이미 그들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 듣고 좋은 땅에 뿌린 씨와 같이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코칭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귀를 열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이 제안하는 제자양육코칭은 제자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영적 지도의 차원을 넘어,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선교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적 유익을 제공해 준다. 이 책이 지향하는 것은 신자들이 제자양육코칭을 통해 깨어나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센트럴신학대학원에서 저자 중의 하나인 해리슨 교수와 함께 선교적 사역을 위한 코칭 수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이 책은 센트럴 한국부에서 번역 출판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책들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이 출판되기 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보경 간사와 장동훈 목사, 그리고 함께 한 스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2016년 5월 캔ساس 사니 본교 교정에서  
박사무엘



## 한국어 번역판 서문

한 문화 속에 깊이 자리잡혀 있어서 그 문화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도구와 훈련들이 있다. 우리는 제자양육코칭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 문화를 초월하여 번역되어 감사하다. 제자양육코칭의 원리들과 실천들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동안 의도적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기독교 가계도의 또 다른 가지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이 책의 공동저자이자 제자양육코칭을 센트럴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소개한 어셀 해리슨 박사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의 번역, 출간 작업에 협력해 준 한국부 디렉터 박사무엘 박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이 책의 한국어판 발행을 도와주는 출판사 Nurturing Faith의 렉스 호튼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기독교 운동은 하나님의 세상 모두를 위한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화합으로 인해 문화간 교류를 누리게 되는 기회를 가진다. 우리는 한국인 독자들이 우리가 제자로서 섬기는 단 한 분, 그리스도를 좇아가는 동안 이 제자양육코칭 책이 그들의 여정에 축복이 되기를 소망한다.

마크 티즈워스(Mark Tidsworth)

피너클 리더십 협회 회장



제자양육코칭이 최초의 청중을 넘어서서 더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기 그지없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 받을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함께 하면서, 나는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은사와 자원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 책의 한역 출간에 중추 역할을 한 센트럴신학대학원의 박사무엘 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비전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몰리 마샬(Molly Marshall) 총장과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학장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어셀 해리슨(Ircel Harrison)  
피너클 리더십 협회, 코칭 담당자  
센트럴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 임시디렉터



---

## 머리글

만약 당신이 교회적 차원에서 기독교 교육이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program in a box)”을 찾고 있다면, 이 중요한 책 속에 들어 있는 원리들을 읽고 적용하면서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정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세기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책의 저자들이 의도하는 활동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21세기 세상의 특성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이 책은 꼭 읽어야 한다.

저자들은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 명료한 통찰력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은 교회 발전에 관한 다른 저자들의 글과 생각을 통해 최근의 동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독자들은 리더십, 교회 문화, 변화, 그리고 21세기 하나님의 교회의 보편적인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방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그 입지를 잃어가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소리를 듣는다. 제자양육코칭(Disciple Development Coaching, DDC)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각자의 설 자리를 찾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잠재력을 가진 고도의 관계중심적인 활동이다. 또한 이 책은 교회의 선교에 대한 책임을 모든 제자들의 손과 마음과 정신 안에 둔다.

저자들은 각 장을 일관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면서 주제를 풀어나간다. 이 책은 “실용 서적”이다. 독자는 텍스트 안에 자신을 이입하고 훈련 교본처럼 실습을 통해 익혀야 한다. 그렇지만, 이 책이 하나의 방식이나 프로그램은 아





니다. 전반적 토대는 관계적이고 자연적이다. 혹자는 왜 우리가 이것을 오래전에 알아내지 못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코치와 제자의 관계는 경청과 능력부여에 강조점을 두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그 제자가 자신의 기독교적 범주 안에서 이미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도록 힘을 부여해주는 것에 역점을 둔다. 코치와 제자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질문하고, 경청하며, 탐구하고, 설계하고, 헌신하고, 지원한다. 시작이나 끝은 없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오랜 삶의 기간을 함께 하는 관계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첫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자양육코칭이란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변화(change), 성장(growth), 전환(transformation)을 강조하는 사고와 관계의 새로운 방식이다.” 이 책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믿음의 전통들의 테두리를 넘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성공적으로 정의하고, 서술하며, 윤곽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약속을 붙잡는 운동이다. 읽고 나서 그냥 다시 책장에 꽂아둘 것이 아니라, 읽고 행동해야 하는 책이다.

진저 바필드(Ginger Barfield)

남부루터신학교(Lutheran Theological Southern Seminary) 부학장



## 추천사

“예수님은 우리들(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기독교 교육 목사로서, 나는 내가 이런 저런 수업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유익한 수업들이지만, 나는 지식 이상의 어떤 것을 결실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느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나 우리는 “제자 삼는 것”을 정통 신앙을 따르고 전통을 계승하는 것과 동일시해 왔다. 지식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떤 노력에 대한 목표가 없다면 실제로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없다. 제자양육코칭은 제자가 스스로 정한 목표에 근거하여 성경적 지식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제자양육코칭은 또 하나의 과목이 아니다. 그것은 신학이나 교리, 혹은 교회 조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제자들이 코치를 받는 과정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대일 참여로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가 하기 원하고 되기 원하는 것을 성취할 능력을 그 안에서부터 끌어내도록 돕는다.

나는 21세기 기독교 교육, 이른바 “제자 삼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자양육코칭을 통해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

– 토미 딜(Tommy Deal)

Pinnacle Leadership Associates, 협동침례교회, 재해대책 조정자

“마크 티즈워스와 어셀 해리슨은 교회에게 이 시대를 위한 도구를 안겨주었다. 서



서히 다양한 곳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가 사람의 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다. 그 꿈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선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통치(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즉, 모든 창조세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 삶의 재조정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재촉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개인주의와 자율을 찬양하는 문화 - 개성이란 구애받지 않는 선택으로 여겨지고, 자유란 선택과 욕망에 따라 자아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 - 속에서는 허드렛일로 여겨진다.

에베소의 신앙공동체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2-13). 이어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22-24)는 말씀을 듣는다. 물론,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소그룹들과 일부 교회들은 신실한 제자로 성장하는 일에 착수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다. 제자양육코칭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다. 자신 안에 있는 장점들과 성장 활동들을 찾게 도와주는 코칭 전략에 근거하여, 제자양육코칭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의도하신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제자들을 초청하는 동료 코치들의 훈련을 도표화한다. 완전하고, 알찬 실행을 기반으로 하는 이 책은 프로그램에 입각한 성장 강좌들의 '일곱 단계 신드롬'을 기피한다. 대신, 교회와 개인의 삶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개인 및 조직들을 개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전해준다.

제자양육코칭은 21세기의 교회에게,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자아로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시기 적절한 선물이다. 해리슨과 티즈워스에 의해 약속된 이 훈련은 하나님의 사명과 창조 계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코치들과 코칭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한 부르심이자 도구이다. 이것은 기다린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활용될 가치가 있는 선물이다.”

– 앨런 아놀드(Alan Arnold)

행정노회, 삼위일체노회, 렉싱턴, 사우스 캐롤라이나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믿음에 관한 당신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킨 사람을 기억하는가? 비판없이 들어주고, 격려하고, 당신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다정스럽게 건네던 사람을?”

교회를 배경으로 제자도를 키우는 것, 이것이 내가 제자양육코칭을 경험해온 방식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안의 신앙 여정에서 성장하는 제자들로 삼아서 동행하기 위한,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의도적이며 집중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당신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타의 많은 활동들이나 개인 일상의 “해야 할 일” 목록에 추가되는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행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 그것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자연스러우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게 들리지만, 어셀 해리슨과 마크 티즈워스가 정리한 내용들은 내가 수년 간 사역을 하면서 보아 온 것처럼 명료하게,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며 쓰여졌다.”

– 마르타 빔(Martha Beahm)

형제교회, 목회자, 결혼과 가족치료사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한 남자가 단순한 방정식을 들고 나와서 물리학의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아인슈타인의  $E = MC^2$ 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방정식이다. 그 단순성의 표면 아래 물리학의 세계를 바꾼 천재성이 숨어 있다.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 마크 티즈워스와 어셀 해리슨에 의해 그들이 설명하는 개념인 제자양육코칭의 맥락에서 인용되고 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제자양육코칭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진리가 21세기 세상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지를 의아해 하는 현재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를 교회에 제시하는 비범함이 들어 있다. 선교적 교회가 21세기를 위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제자양육코칭은 선교적 교회에 필요한 도구나 사고 방식을 보여준다.

티즈워스와 해리슨은 독자들에게 근본과 기본들, 그리고 제자양육코칭의 적용 방식들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성령이 준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13:35)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도하신 교회가 되기 위한 시작이다.”

– R.T. 바이른(R.T. Byrne)

성바울루터교회, 목사, 사우스 캐롤라이나

“코칭과 제자도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어본 후 내가 이 책에 대하여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점은, 문화가 급속하게 변해가는 지금의 탈근대, 탈기독교적 상황에 제자도 코칭이 왜 적합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자들은 명료한 도구들과 통찰력 있는 질문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코칭 과정이 교회 지도자들의 제자도 성장을 깊게 하며 교회의 선교를 강화하는지에 대한 유익한 설명들을 제시한다. 교인 감소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이나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



한 보다 깊은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관계적인 접근법이다.”

– 허만 R. 유스(Herman R. Yoos)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회, 주교, 미국복음루터교회

“제자양육코칭은 교육하며 영감을 주는 뛰어난 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제자양육 코칭에 들어 있는 지혜는 오래된 것이지만, 그 과정이 신선하고 혁신적이다. 이것은 목회적 돌봄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돌보며 목회적으로 ‘동행하는’ 접근법이다. 이것은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영적인 양육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회의 참석을 멈추고 섬김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등록교인 증가에 중점을 두는 교회에서 제자들의 양육에 중점을 두는 교회로 바꾸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목적을 지향하는 사역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사역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만약 복음이 더이상 ‘가르쳐지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히는’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제자들이 동화가 아니라 통합을 향해 나아가기를 열망한다면,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가 되는 것에 당신의 마음이 이끌린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 캐서린 그레이엄(Katheryn Graham)

캔사스시티 지역 부교역자, 제자회

“가장 최신의,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들과 신식 교회의 유행은 일반적으로 제도적인 사역의 변화를 제안하는 반면, 제자양육코칭은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한 현실들을 다루어 나간다. 단계별 방식으로 사용하기 쉽게 쓰여진 이 책은, 코치



들이 의도적으로, 숨씨있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가진 영적 은사들을 세상에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들을 제시한다. 제자양육 코칭을 통해 당신 교회의 교인들은 창조와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고, 그로 통해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습이 되어간다."

- 스티븐 밌스(Stephen Mims)

썸머메모리얼루터란교회, 목사, 뉴베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만약 당신이 올해 새로운 모험을 하려 한다면, 제자양육코칭이야말로 변화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설레이는 여행이 될 것이다. 진정성이 있고 실제적이며,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결정적으로 사용하기가 쉽다. 마크와 어셀이 자료와 도구들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것이 가진 가능성들에 대해 매료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야말로 뛰어난 자료이다!

- 미키 콜리 게이(Mikki Corley Gay)

생명의 숨 루터란교회, 교회개혁가, 블리스우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에 믿음과 리더십을 지닌 두 명의 타고난 실행가들이 제시하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제자양육코칭에 대한 유용한 지혜가 있다. 마크와 어셀은 사람들을 보다 깊은 믿음과 변혁적인 삶으로 이끄는 길에 대한 최전방의 경험을 가지고 마크와 어셀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우리와 나눈다. 독서용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이 책을 추천한다."

- 수잔 레오나드-레이(Susan Leonard-Ray)

앤더슨 구역 감독, 연합감리교회, 사우스 캐롤라이나



## 목 차

- 역자의 글 · 4
- 한국어 번역판 서문 · 6
- 머리글 · 8
- 추천사 · 10
- 목차 · 16

- 
- 프롤로그 · 18

## 제1부

- ① 기초 쌓기 · 26
- ② 사람 계발에 힘쓰기 · 44
- ③ 코칭 대화 시작하기 · 70



## 제 2 부

- ① 단계 : 질문하기 • 90
- ② 단계 : 경청하기 • 102
- ③ 단계 : 탐구하기 • 112
- ④ 단계 : 설계하기 • 130
- ⑤ 단계 : 헌신하기 • 148
- ⑥ 단계 : 지원하기 • 158

## 제 3 부

- ① 코칭 운동을 시작하기 • 168
- ②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되기 • 178
- ③ 제자양육을 위한 코칭의 사용 • 192

- 
- 에필로그 • 208

## 프롤로그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항상 나누고 싶어하는 대화들이다. 이 일은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제자양육코칭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한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와 같이 말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직관적으로 진실을 깨닫거나 통찰을 얻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 그 사람은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훈련 내내 우리는 그 목회자를 위해 바퀴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질문을 던지고 배움에 몰두하면서, 기독교 영성훈련의 한 형태로 제자들을 코칭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불이 켜지는 순간, 그것은 번개처럼 찰나에 일어났다. 통찰의 순간에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선 것이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 교회에서 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소명, 꿈, 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 말이지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탐구하기 위한 상황을 제공하는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를 우리는 늘 열망해왔다. 영적 삶의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지원, 격려, 그리고 책임이 필요했다. 그리고 바로 이 목회자는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제자양육코칭은 이러한 형태의 관계와 대화를 촉진하는 도구이다. 이것은 서로를 도와서 모두 보다 충만하게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늘 하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즉 의도적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줄 양식, 구조, 그리고 활동들을 제자양육코칭에서 찾게 된 것이었다.

2008년, 나(마크)는 한 주류 교단의 교회를 위한 평신도 리더십 수련회 강사로 초대되었다. 리더십 팀의 삼분의 일 정도가 매년 교대로 사역하였고, 그래서 연초에 갖는 수련회는 안전을 책정하고, 영감을 얻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교회 목사님을 코칭했었고 그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초대되어 기뻐했다. 그분은 이 교회의 개척 목사님이었고, 개척 후 12년간 교회는 여러 단계의 발전을 거치며 성장하고 있었다. 이제 그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교회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님 혼자 제자를 양육할 수 없었다. 평신도들도 더 이상 리더가 아닌 관리자로 일을 하기가 어려웠고, 또 교회의 모든 리더십 양육을 목사님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었다.

이 목사님에게 코칭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개념 안에서 평신도 리더들을 실험적으로 훈련해보기로 결정했다. 만일 평신도 리더들이 코칭의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면, 이 교회에서의

제자양육이 점차 확대될 수 있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나는 코치 훈련과 실습을 통해 얻은 많은 원리들을 발표 자료로 만들었다. 매우 유익한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배움과 영감, 성장에 대한 절반의 기대도 있었다. 수련회 중반쯤, 목사님과 나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잘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서로 물었고, 양쪽의 대답은 “좋지 않다”였다. 재빨리 우리는 수련회의 방향을 조정하고서 새로운 의제로 다시 시작했다.

이후에 우리는 어찌 된 일인지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전문 코칭 (professional coaching)의 원리들은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꽤 전망이 좋았다. 하지만, 전문코치들을 위해 설계된 코칭 훈련들은 교회에 곧바로 적용되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다. 교회의 목표들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교회의 상황들은 독특하다. 전문코치들은 일정을 정해서 만나고, 비용을 청구하고, 전문적인 양식을 사용하며, 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의 삶은 매우 다르다.

예상하듯이, 위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사이에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다. 코칭에 대한 우리의 현재 접근 방법은 여러 차례 성공과 실패를 되풀이한 후에 얻은 결과물이며, 사역자와 교회 직원과 평신도들을 통해 배운 많은 경험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중요한 실생활에서의 경험과 실험과 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코칭 절차를 발견하고 다듬어나갔다.

운동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아마도 그 운동 내부에서 이름이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제자양육코칭”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앉아서 골똘히 생각한 것도 아니고, 여러 이름들 중에서 하나씩 추려나가며 정한 것도 아니다. 대신, 이 이름이

우리를 찾아내었다. 그럼, 이제 제자양육코칭 운동의 필수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분석해 보자.

## 제자 (Disciple)

말씀, 행위, 실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매료되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제자는 배우는 자나 숭배하는 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자는 그 사람을 좇아서 자신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내면화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특징들, 행동들, 태도들이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학생,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이 모두가 좋은 단어들이지만 제자도의 포괄적인 성격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 계발 (Development)

자라고, 변화하고, 전환하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감

어떤 발달은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과정이다. 물론 좋은 영양, 충분한 휴식, 활기찬 운동, 그리고 안전한 환경은 신체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그러한 성장 과정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갖는다. 제자의 성장은 그와 다르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라기도 하지만, 의도성이 관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강요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성장을 원하고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 여정에 우리가 기여해야 할 몫이다.

## 코칭 (Coaching)

의도적 대화들을 통해 다른 이들의 성장을 촉진함

우리가 처음에는 성직자와 교회 직원들을 위해 코칭 과정을 사용했지만, 곧 영적 여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의 성장을 위해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에 최종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실천이라고 말하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의 원리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 코칭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최종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제자양육코칭에 대한 공부를 마친 후,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제자양육코칭을 위한 배경과 맥락과 토대, 그리고 도입을 제시한다. 2부는 사례 및 관련

실습들과 함께, 제자양육코칭 모델을 설명한다. 마지막 3부는, 교회 생활에 제자양육코칭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 제자양육코칭 과정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활동에 대하여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좀 더 활짝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주기를 기도한다.